

일상에 지친 심신 깨우는 '풍경소리'



요코야마 미에코 작 '풍선초 리스'

생명의 경이로움

'우리의 숲...' 25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작지만 아름다운 숲을 담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세밀화가 윤봉선씨와 플라워 아티스트 요코야마 미에코의 2인전 '우리의 숲-윤봉선+요코야마 미에코'.

윤봉선씨는 숲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들의 투명한 형상을 수채 물감으로 종이 위에 정밀하게 묘사한다. 여러 종류 야생식물의 섬세한 표정과 특징을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연약한 뿌리털 하나까지 쟁겨 표현했다.

요코야마 미에코는 주로 식물과 씨앗을 재료로 리스(장식용 화환) 등을 제작했다. 식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코야마 미에코는 숲의 조각들을 모아 동그란 리스와 네모난 상자 안에 자신만의 이상적인 숲을 만들어낸다.

두 작가의 작품은 작은 식물 하나에서 큰 생명의 모습을 보고, 소소한 것에서 깊은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해준다.

윤봉선씨는 서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웅덩이 관찰일기', '동물들이 사라졌어요' 등 식물도감, 이야기 그림책 등 작업을 하고 있다. 요코야마 미에코는 '베란다의 정원 일', '손바닥 안에 꽃을 모아' 등을 펴냈다. 9일은 휴관일이다.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가만히 꽃을 그려보다'

연필로 피운 꽃

김은주 초대전 7월13일까지 '해와'

수없이 반복되는 검은 연필선은 형태를 만들고, 명암을 만들고, 색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꽃을 피워낸다.

문화예술공간 해와는 7월13일까지 서양화가 김은주씨를 초대해 '가만히 꽃을 그려보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고집스러운 만큼 연필이라는 한가지 재료를 고집해온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여백에 대비돼 점점이 확장되는 꽃잎들을 연필로 풀어놓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결코 가볍지 않은 연필 선들은 묵직함을 던진다. 수고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김씨의 작품에서는 어느 매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함과 다양함이 느껴진다.

작가는 "지금껏 꽃을 그리고 그림 것이지만 이것이 꽃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233-9011. /김경인기자 kki@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문화관 카페테라스에서 시민들이 차를 마시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이 문화관은 북카페, 로터스갤러리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가 흐르는 공간

5 광주 치평동 '무각사'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무각사 앞마당은 나눔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물건을 사는 사람도 즐겁고 파는 사람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핀다. 어린이 장난감, 의류, 식기, 신발, 불펜, 옷걸이, 골동품 등 각각각색 생활용품이 즐비하다. 가격도 저렴해서 눈썰미만 있으면 몇천원으로 좋은 물건을 손에 넣는 쓸쓸한 재미도 맛볼 수 있다.

7월 무각사 경내에서 열린 이 장터는 무각사(주지 청학스님)에서 마련한 토요 재활용장터 '보물섬'이다. 벌써 6년째 운영되고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나눔마당이다. 보물섬에 좌판을 차린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라 모두 시민들로, 버리기 아까운 생활용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환경을 보존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다.

보물섬이 절집에서 열리는 장터지만 수녀님들도 좌판에서 물건을 판다. 나눔의 의미를 새기자는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의 제안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과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같이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보물섬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문을 연다. 겨울(1~2월)과 여름(7~8월), 악천후를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은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무각사 앞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판매대금의 일부를 유니세프에 기부할 수도 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여의산(如巖山) 자락에 자리 잡은 무각사는 수도도량이지만, 다채로운 문화를 발산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무각사(無覺寺)란 '깨달음조차 필요치 않은 절집'이라는 뜻이다. 이 사찰은 원래 옛 육군전투병과 교육사령부(상무대) 내 군중 사찰(송광사 말사)로 출발했으나

지난 1990년대 상무지구 개발로 인해 시민들의 발길이 본격적으로 달기 시작했다. 여의산 생태가 비교적 잘 보존된 덕분에 도심과 다른 공기를 호흡하려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었으나, 무각사가 다양한 시민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턱을 낮추자 웰빙과 힐링이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무각사가 변신한 계기는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서부터. "시대 변화에 맞춰 불교가 먼저 중생 속으로 가깝게 다가서야 한다"는 주지 청학스님의 지론에 따라 '무각사 문화관'을 건립했다. 이 공간은 1층 북카페 갤러리, 2층 템플스테이 공간, 3층 다도 및 세미나장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인 문화공간은 2010년 문을 연 로터스 갤러리.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작가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로터스 갤러리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속세간을 가리지 않는 무각사의 너른

품을 보여주는 아이콘이다.

무각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신인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인 작가 릴레이 기획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재 연기준 작가(6월15일까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이후 이세현(16~29일), 김경란(7월1~13일), 러은(7월14~27일), 노여운(7월28~8월10일), 이조흠(8월11~24일)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무각사는 이들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도 지원한다. 이는 어려운 창작 여건에서도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갤러리와 같은 공간에 있는 북카페에서는 명상서적과 역사, 여행서적, 인문서 등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 대형서점 같이 백화점식으로 다방면의 책을 전시해놓지 않아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준다. 주로 불교, 미술 부문 신간과 스테디셀러 등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전문 서적을 갖춰놓고 있다.

무각사가 진행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은 지친 심신을 달래려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힐링 체험과정이다. 사찰 안 문화관 3층에서는 주말 명상교실이 진행되고 있다. 명상교실은 30년 전 구산 큰스님의 캐나다인 제자로 30년 동안 참선 수행에 전념해 온 자광 스님이 맡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명상교실은 토요일, 일요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외국인용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명상교실은 '템플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일요일 오전 10~12시에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명상(참선) 수행과 발우 공양, 다도 등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사진=최현배기자 choi@

문화 프로그램으로 문턱 낮춘 도심 속 사찰 불교·미술 등 전문서적 전시 판매 '북카페' 유명 작품전·신인작가 지원 '로터스 갤러리' 나눔 장터 '보물섬'·템플스테이·명상 체험도



무각사 경내에 있는 로터스 갤러리에서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